

위탁캠프 효과? 얼마는 교사들에게

정리·편집부

“수련관에서는 일 년을 온전히 청소년들과 보냅니다. 연중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성 수련 활동을 하고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는 각 성당에서 학생들이 달려 오기 때문이지요. 주일학교 캠프의 경우, 일반 수련 활동과 다르게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하기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의미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의 신부와 수녀, 신학생들과 교사들은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날이면 날마다 아이디어 싸움(?)을 합니다. 적지 않은 회비를 감수하고도 질 높은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위탁캠프를 신청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정재희_데레시다 | 수녀·살레시오 수녀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러 주일학교의 반

응과 효과는 다르다. 캠프는 진행 프로그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난다. 나머지는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몇 개 수련관을 통해 들은 것을 정리해 보았다.

캠프 전 교육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본당 아이들과 경쟁을 하거나 심리전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낯선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캠프를 오기 전에 미리 각 본당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위탁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함께 하기

살아 있는 신앙교육은 심장이 뛰어야 한다.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라는 돈 보스코 성인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들 마음 가까이에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도 캠프에 함께 참여하는 게 좋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수련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방관자나 단순한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캠프장에서도 배움은 이어진다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캠프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진행 교사가 부족할 때 위탁캠프를 신청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위탁캠프를 다양한 캠프 진행 기술과 프로그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탁캠프를 통해 ‘이번 여름 행사는 이렇게 넘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년에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위탁캠프 속으로 빠져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 기술 등을 익히자.

‘우리’와 ‘너희’의 담을 허물시다!

많은 본당이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할 경우, 유독 자기 본당 학생들만 챙기는 교사들이 있다.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모두 하나다. ‘우리 본당, 우리 주일학교’라는 개념은 이런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이끌어 주자.

하느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캠프를 통해 하느님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캠프 진행 중에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등 전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각 본당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한다. 기도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이 우선!

캠프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교사가 먼저 각 기관의 규칙을 숙지하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위탁 기관에서 맡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고’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캠프가 무사히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문

배상도_필립보 | 신부_용문청소년수련원장
정재희_데레시다 | 수녀_살레시오 수녀회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